

요식업 창업 열풍...광주·전남 취업자 수 역대 최대

통계청 취업자 현황...광주 5만7000명·전남 7만4000명 집계 월 100만원 못 버는 임금근로자 비중 '숙박·음식점업' 3분의 1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평균 음식점·주점업 취업자 수가 13만1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낸 2013년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제조업계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지역 산업구조상 요식업 창업이 늘었기 때문에 풀이된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자는 광주 5만7000명·전남 7만4000명 등 전년보다 4.4%(5500명) 증가한 13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반기별로 사·도별 산업중분류별 취업자 현황을 조사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2013년 10만9000명이었던 음식점·주점업 취업자 수는 이듬해 11만명을 넘겼고, 2015년 11만4000명→2016년 12만2500명→2017년 12만3500명→2018년 12만5500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산업별로 보면 지난해 광주지역에서는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가 6만650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광주 교육 서비

스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1000명 줄었지만 음식점·주점업(5만7000명)을 제치고 취업자 수 1위를 지켰다.

통계청 관계자는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에는 학교 교사 뿐만 아니라 학원 직원, 도서관 사서, 급식 담당자 등도 포함된다"며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기조에 맞춰 관련 직군이 다 양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은 농업 취업자가 전체 18%를 차지한 17만35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과 공공근로직이 포함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8만1500명으로 전남지역 취업자 수 2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 결과 임금근로자 10명 가운데 1명이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숙박·음식점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10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4~31%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임금근로자 2074만7000명 가운데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0.1%로 집계됐다.



요식업 창업이 눈에 띄게 늘면서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음식점·주점업 취업자 수가 13만10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임시 휴무에 들어간 광주시 동구의 한 커피전문점.

100만~200만원 미만은 23.1%, 200만~300만원 미만은 31.9%, 300만~400만원 미만은 17.0%, 400만원 이상은 17.9% 등의 비중을 보였다.

100만원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 비중을 산업대분류별로 보면 농업·축산업(30.6%), 숙박·음식점업(27.8%),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23.7%),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20.0%) 등에서 높았다.

특히 100만~200만원 미만까지 포함하면 월 200만원을 못 버는 근로자가 농업·축산업은 67.5%, 숙박·음식점업은 64.5%에 각각 달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식품부, 6월 30일까지 공공데이터 창업 경진대회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2015년 시작해 올해 6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부문은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공공데이터 활용 ▲팜팜데이터 활용아이디어 기획 등 3개 부문이다. '팜팜'은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해 현장 농경지에 대한 면적과 속성 정보를 구축한 농경지 전자 지도를 말한다.

농림축산 관련 예비창업자나 개인·팀·기업 등 누구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그간 경진대회를 통해 6개 이상 창업기업이 배출됐고, 사업화 과정에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755)이나 경진대회 누리집(data.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범수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농식품 분야 고수요·고가치 공공데이터 발굴·개발을 확대해 창업 붐을 조성하고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매출부진' 가맹점 1년내 폐업해도 위약금 안낸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계약 갱신 부당 거절 유형도 명시

이르면 5월부터 매출이 부진한 가맹점이 1년 안에 폐업을 원하면 중도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가맹본부에 물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이 가맹본부에 법에 따라 사전에 알린 예상 매출액의 하한보다 적어 중도 폐업하는 경우, 영업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맹점주에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매출이 부진하다면 가맹본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규정해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유형들도 명확히 표현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가맹점단체 활동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특정 가맹점주에 대해 차별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행위와 '부당 계약 갱신 거절'에 해당한다.

인테리 등 점포환경 개선에 가맹점주가 부담한 비용을 회수할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용 ▲예상 수익 또는 현재수익의 산출근거가 된 점포와 점포 예정기간 거리 등을 반드시 밝히도록 했다.

또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개념은 가맹본부의 총 매출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자율규약 심사요청과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공기산업 이끌 전문가 27일까지 모집

광주시 북구 오룡동에 있는 (재)한국공기산업 전문원은 오는 27일까지 '읍압 및 공기질 전문가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기안전원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돼 광주시가 미래산업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산업 전문가를 키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훈련은 취업 컨설팅 및 맞춤형 취업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보건환경·기초화학 등 이론 ▲시스템 설계·구축운영·시설안전관리 등 실무 ▲고성능 공기정화기 제작 및 관리·성능평가 등 실습 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모든 교육생에 식사비를 포함해 매일 최대 25만원 상당 실비가 지급된다.

특전으로 등록민간자격인 '공기안전평가사'와 '공기안전유지관리사' 시험 응시자격도 지원된다.

교육은 오는 5월7일 시작돼 18주 동안 총 500시간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기안전원 홈페이지(koasi.or.kr)와 전화(1544-4529)로 확인할 수 있다.

이행우 이사장은 "공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조계현 원장의
특 특 창업이야기

지금은 착한 프랜차이즈가 필요한 시기

정부의 빠른 대처로 인해 두 자릿수 이내로 확산하게 떨어진 확진자 수를 보면 이전 서서히 다시 사회가 정상화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언제 터질지 모를 집단감염으로 인해 여전히 정상화 시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 교차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다. 그 와중에 코로나19로 인해 나빠진 경기 탓에 작년 대비 20만개 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아직 기업들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줄어든 일자리 수다. 주로 소상공인들이 고용해오던 일자리들이 사라진 것이 아닐까 예상된다.

늘 그랬다. 경기가 나빠지면 자영업 시장은 크게 위축됐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제법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이 과정에서 운영자금에 충분치 않은 일부 자영업자들은 경영악화와 폐업이라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경기가 더 나빠지면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나서게 되고 일자리는 더 많이 사라져서 이로 인해 많은 병에 퇴직자들이 생겨나고 직장에서 나오게 된 퇴직자들은 결국 생계형 창업시장에 내몰리게 된다.

그래서 경기가 정말 나빠지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후유증 중 하나로 외관상 다시 창업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 되지만 창업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가 없이 창업에 나서야 하는 퇴직자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다보니 불경기 와중에 등장해 가맹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스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생겨나게 된다. 과거에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예비창업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일부 브랜드들은 오히려 가맹비와 창업비용, 물류수익을 올려서 창업특수를 누리는 브랜드들이 있었고 반대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가맹비와 창업비용, 물류수익을 최소화해 예비창업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 브랜드들도 있었다.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중대형 창업규모의 브랜드들이 시도한 전략들이었고 후자의 경우에는 소규모 창업규모인 브랜드들이 시도한 전략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국내 상황으로 인한 경기불황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인한 경기불황이기에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새롭게 가맹창업에 나서는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규모를 떠나서 사회적 고통분담 차원에서 가맹비와 로열티, 창업비용, 물류수익 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전략으로 전환해서 이런 국가적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지금 국내 경기상황이 상황인지라 프랜차이즈 업계도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이 한창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7개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하락한 기존 가맹점들의 열악한 상황을 이해하고 상생의 취지로 로열티 인하, 식자재 지원, 광고, 판촉 지원, 휴점 지원, 임대료 지원, 방역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팍팍해진 현실 속에서 모처럼 보는 훈훈한 풍경이다. 정부도 이에 부응해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추경에 편성해 조만간 세부 지원 조건과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비록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지만 극복 과정에서 '착한 프랜차이즈', '착한 건물주' 등 착한 시리즈가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돼 우리 사회에 상생과 공생에 대한 따뜻한 인간적인 배려가 일상화 되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